

듣는

2025년 1월호

마음



기독교 대한 하나님의 성회

여의도순복음성북교회

YOIDO FULL GOSPEL SEONGBUK CHURCH

## “듣는 마음” 책자 소개

### ‘듣는 마음’이란

말씀을 선언하는 것이 곧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은 말씀을 소리내어 읽으며, 내 안에 임한 말씀을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말씀으로 기도하는 영성 훈련입니다.

큐티(QT, Quiet Time)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핵심이라면, “듣는 마음”은 성경을 소리내어 읽고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성경을 읽어가고, 말씀에 집중된 기도를 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 가길 소망합니다.

### ‘듣는 마음’ 활용법

예수님은 이천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듯, 오늘날에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오셨 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실재가 되도록 다음과 같이 하십시오.

#### 1.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기

(마태복음 6:9-10) 9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10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말씀을 내게 맞추려 하지 말고, 나를 하나님께 맞춰야 합니다. 말씀을 내가 이해하고, 내게 적용하려고 하기보다, 기도를 통하여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맞추십시오. 주기도문의 내용을 통해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 2. 말씀을 소리내어 읽기

(시편 1:1-2) 1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2 오직 야훼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묵상은 조용하게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묵상은 사자가 자기의 턱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리듯(사31:4),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중얼거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술로 소리내어 고백하며, 선언하고 선포하듯이 읽으십시오.

#### 3. 말씀으로 기도하기

(베드로전서 2:1-2) 1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2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기도는 말씀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말씀읽기는 하나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것에 대한 선언입니다. 갓난 아기들과 같이 신령한 젖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믿음을 가지고 선언하십시오. 나아가 말씀읽기를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을 가지고 반복적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십시오.

말씀읽기와 기도는 결코 나뉘어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임해지는 순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살아 역사하여, 우리의 삶의 실재가 되게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듣는 마음”을 통해 말씀을 읽어가며 말씀으로 기도하여, 말씀의 역사를 경험해 보십시오.

### 블레싱 타임 : 듣는 마음 · 4

오늘의 성경읽기

### 블레싱 타임 : 주간 메시지 나눔 · 128

1월 3일 공과 - 회개하라

1월 10일 공과 - 흠어져 버리는 사람들

1월 17일 공과 - 의와 공도를 행하는 언약백성

1월 24일 공과 -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1월 31일 공과 - 하나님의 자녀

### 선교사 열전 · 138

하디 선교사(4)

## 창세기 1:1-19 태초의 천지창조

## 빛이 있으라

1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3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5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 궁창을 만드시고

6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7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8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 땅과 씨 맺는 식물을 만드시고

9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물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0 하나님이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1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2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3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 해와 달과 별의 창조

14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15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16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17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18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9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1장

21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22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 에스라 1장

5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야훼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6 그 사면 사람들이 은 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 사도행전 1장

13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매, 마태와 밋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14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창세기 1:1-19

## 태초의 천지창조

### 빛이 있으라(1-5절)

창세기 1장은 모든 피조물의 기원을 설명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는 강력한 선언으로 시작합니다. 이는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분명히 합니다. 초기의 지구는 "혼돈하고 공허"했으며, 어둠이 깊음을 덮고 있었습니다. 이는 아직 형태와 질서가 부여되지 않은 원시적 상태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시자 빛이 생겼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보여줍니다.

### 궁창을 만드시오(6-8절)

하나님은 물과 물 사이를 나누는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는데, 이는 대기권의 형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지구의 기본적인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 땅과 씨 맺는 식물을 만드시오(9-13절)

하나님은 땅과 바다를 구분하시고, 땅에서 식물이 자라나게 하셨습니다. 이는 생명체의 첫 출현을 나타냅니다. 각종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그 종류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이는 생물의 다양성과 재생산 능력을 보여줍니다.

### 해와 달과 별의 창조(14-19절)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들은 낮과 밤을 주관하고, 계절과 날과 해를 나타내는 표징이 되게 하셨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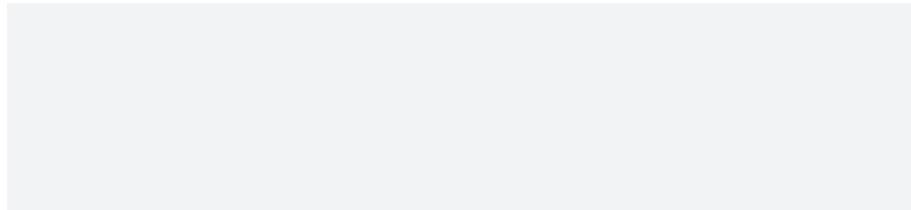
**창세기 2:1-17**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이루어져

### 안식하시니라

**1**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2** 하나님께서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3**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 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4**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야훼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5** 야훼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6**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 사람을 지으시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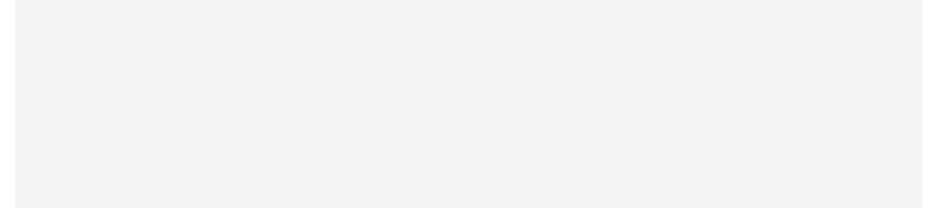
**7** 야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되니라 **8** 야훼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9** 야훼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 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10** 강이 에덴에서 흘러 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11**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월라 온 땅을 돌렸으며 **12**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 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13**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돌렸고 **14** 셋째 강의 이름은 히테겔이라 앗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15**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16** 야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17**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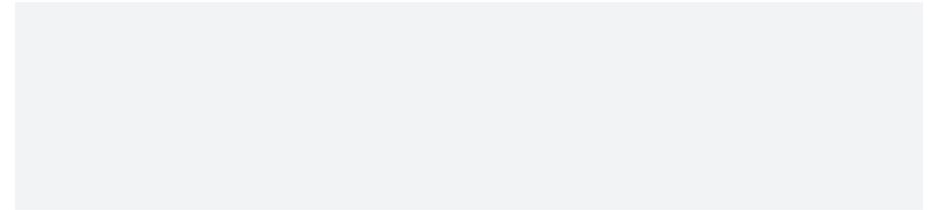
### 마태복음 2장

**9**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야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10**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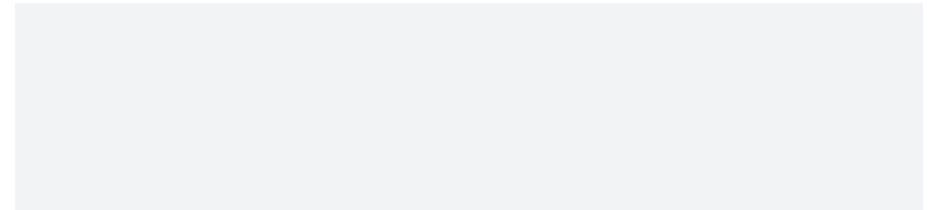
### 에스라 2장

**68** 어떤 족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야훼의 성전 터에 이르러 하나님의 전을 그 곳에 다시 건축하려고 예물을 기쁘게 드리되 **69** 힘 자라는 대로 공사하는 금고에 들이니 금이 육만 천 다락이요 은이 오천 마네요 제사장의 옷이 백 벌이었더라



### 사도행전 2장

**3**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4**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 읽기 가이드

창세기 2:1-17

하늘과 땅과 모든  
만물이 이루어져

### 안식하시니라(1-6절)

창세기 2장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완성을 선언하며 시작합니다. 6일간의 창조 후, 하나님은 7일째 되는 날에 안식하셨습니다. 이 안식은 단순한 휴식이 아니라 창조 사역의 완성을 축하하고 기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이 7일째 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구별하셨는데, 이는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게 될 안식일의 기원이 됩니다.

### 사람을 지으시고(7-17절)

인간 창조의 과정을 상세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이는 인간이 육체적 존재일 뿐만 아니라 영적 존재임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에덴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사람을 두셨습니다. 이 동산에는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있었고, 특히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담에게 동산을 다스리고 지키는 책임을 주셨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창세기 3:1-15 동산 나무사이에 숨어

## 뱀의 유혹

1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2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3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4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5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6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7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8 그들이 그 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의 낫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 뱀이 당한 저주

9 야훼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10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11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먹었느냐 12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3 야훼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꾀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14 야훼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 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15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3장

1 그 때에 침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 에스라 3장

10 건축자가 야훼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야훼를 찬송하되 11 찬양으로 화답하며 야훼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시므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야훼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야훼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 사도행전 3장

6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7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 읽기 가이드

창세기 3:1-15

### 동산 나무 사이에 숨어

#### 뱀의 유혹(1-8절)

창세기 3장은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사건인 인간의 타락을 다룹니다. 이야기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며, "뱀"이라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성경은 이 뱀을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로 묘사합니다. 이는 단순한 동물이 아닌 사탄의 화신임을 암시합니다. 뱀은 교묘하게 하와에게 접근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뱀의 전략은 교활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직접적인 도전입니다. 더 나아가 뱀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존재로 묘사하며,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유혹합니다.

#### 뱀이 당한 저주(9-15절)

하나님은 뱀을 먼저 저주하십니다. 뱀에 대한 저주는 사탄에 대한 영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메시아에 대한 최초의 예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탄의 패배를 말씀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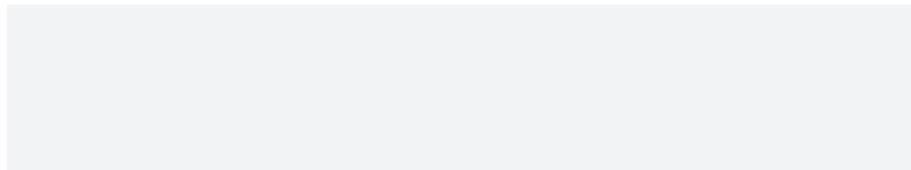
## 창세기 4:1-15 가인과 아벨

## 죄를 다스려라

**1**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2**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3**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야훼께 드렸고 **4**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야훼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5**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6**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7**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엮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8**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죽이니라

## 최초의 순교자 아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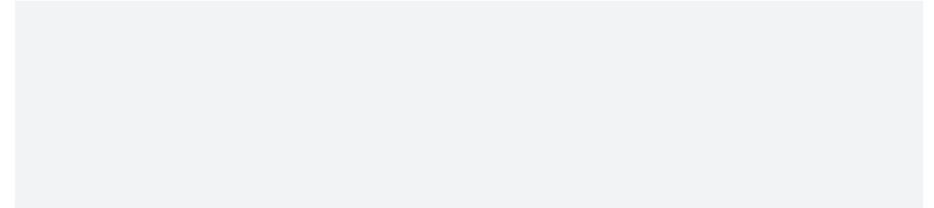
**9** 야훼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10**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11** 땅이 그 입을 벌려 네 손에서부터 네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12** 네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네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3** 가인이 야훼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14**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낫을 피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무릇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15**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칠 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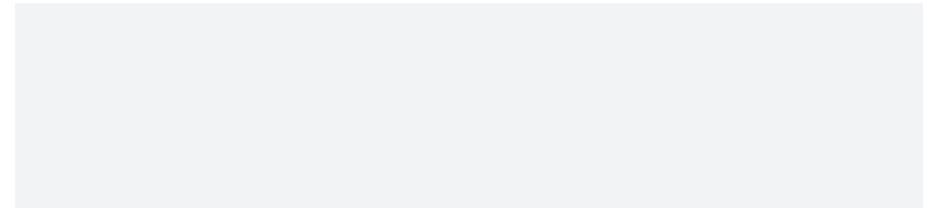
## 마태복음 4장

**3**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아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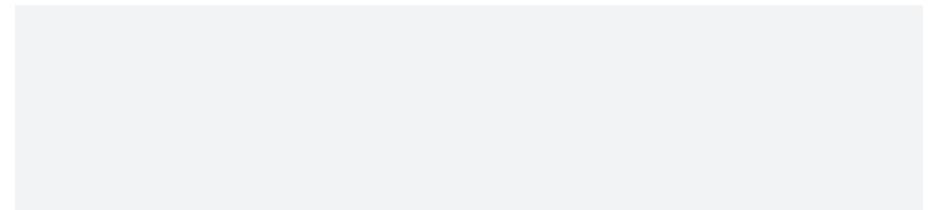
## 에스라 4장

**3**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 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 사도행전 4장

**29**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30**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창세기 4:1-15

## 가인과 아벨

### 죄를 다스려라(1-8절)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첫 자녀를 낳습니다. 하와는 가인을 낳고 "야훼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 후 동생 아벨이 태어납니다. 가인은 농사를 짓는 자가 되고, 아벨은 양을 치는 자가 됩니다. 두 형제는 장성하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립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제물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러자 가인은 분노하고 안색이 변합니다.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의 소원은 네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죄를 다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간은 죄에 빠질 위험도 있지만 그 죄를 다스릴 수도 있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 최초의 순교자 아벨(9-15절)

안타깝게도 가인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그는 동생 아벨을 들에서 죽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를 지적하시고 형벌을 선고하십니다. 땅은 더 이상 그에게 소출을 내주지 않을 것이며, 그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는 농부였던 가인에게 극심한 형벌이었습니다. 그러나 형벌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주십니다. 가인이 자신을 만나는 자에게 죽임을 당할까 두려워하자, 하나님은 그에게 표를 주어 평안케 하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창세기 5:1-32 아담의 계보

##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

1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2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3 아담은 백삼십 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4 아담은 셋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5 그는 구백삼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6 셋은 백오 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7 에노스를 낳은 후 팔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8 그는 구백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9 에노스는 구십 세에 계난을 낳았고 10 계난을 낳은 후 팔백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1 그는 구백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12 계난은 칠십 세에 마할랄렐을 낳았고 13 마할랄렐을 낳은 후 팔백사십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14 그는 구백십 세를 살고 죽었더라 15 마할랄렐은 육십오 세에 야렛을 낳았고 16 야렛을 낳은 후 팔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7 그는 팔백구십오 세를 살고 죽었더라 18 야렛은 백육십이 세에 에녹을 낳았고 19 에녹을 낳은 후 팔백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0 그는 구백육십이 세를 살고 죽었더라

##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노아

21 에녹은 육십오 세에 므두셀라를 낳았고 22 므두셀라를 낳은 후 삼백 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23 그는 삼백육십오 세를 살았더라 24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25 므두셀라는 백팔십칠 세에 라멕을 낳았고 26 라멕을 낳은 후 칠백팔십이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7 그는 구백육십구 세를 살고 죽었더라 28 라멕은 백팔십이 세에 아들을 낳고 29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야훼께서 땅을 저주하시므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30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오백구십오 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31 그는 칠백칠십칠 세를 살고 죽었더라 32 노아는 오백 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5장

3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4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 에스라 5장

17 이제 왕께서 좋게 여기시거든 바벨론에서 왕의 보물전각에서 조사하사 과연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 하나님의 이 성전을 예루살렘에 다시 건축하라 하셨는지 보시고 왕은 이 일에 대하여 왕의 기쁘신 뜻을 우리에게 보이소서 하였더라

## 사도행전 5장

3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 읽기 가이드

창세기 5:1-32

### 아담의 계보

####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은 인간(1-20절)

본문은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라는 구절로 시작합니다. 이는 인간 창조의 근본 목적을 다시 한 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창조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모양대로 창조되었으며, 사람의 존엄성과 가치의 근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말씀합니다.

#### 하나님과 동행한 에녹 그리고 노아(21-32절)

에녹에 대해서 본문 말씀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 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24절). 이는 다른 이들과는 다른 에녹의 독특한 종말을 보여줍니다. 에녹은 죽음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갔습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가능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하나님은 노아를 통해 구원 계획이 이루어질 것임을 말씀합니다. 노아의 이름은 "안위"입니다. 이는 죄로 인해 저주 받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6:5-22**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하나님**은혜를 입은 노아**

5 야훼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6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7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 이니라 하시니라 8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9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에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10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11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12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방주를 만들다**

14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15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삼백 규빗, 너비는 오십 규빗, 높이는 삼십 규빗이라 16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 중 하 삼층으로 할지니라 17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18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19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이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20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네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21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네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22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9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20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 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에스라 6장**

16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17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수소 백 마리와 숫양 이백 마리와 어린 양 사백 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숫염소 열두 마리도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18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사도행전 6장**

6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7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 읽기 가이드

창세기 6:5-22

###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하나님

#### 은혜를 입은 노아(5-13절)

본문은 인간의 타락을 나타냅니다. 인간의 모든 생각과 행동이 악으로 가득 찼음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암울한 상황 속에서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야훼께 은혜를 입었더라" (8절). 노아는 당대의 유일한 의인이라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의로움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입은 자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 방주를 만들다(13-22절)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방주를 만들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방주의 재료인 고페르로 방주를 칠하도록 명하시며, 방주의 크기, 구조 등에 대해 상세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리고 방주를 다 만든 후에 모든 종류의 동물을 방주에 태우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동물을 방주에 태워 구원함으로 다시 세상을 시작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보여줍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창세기 7:1-24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물 심판

##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

1 야훼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2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씩, 부정한 것은 암수 둘씩을 네게로 데려오며 3 공중의 새도 암수 일곱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 지금부터 칠 일이면 내가 사십 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5 노아가 야훼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육백 세라 7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8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9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 심판과 구원

10 칠 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11 노아가 육백 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이라 그 날에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12 사십 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13 곧 그 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14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15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아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16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17 홍수가 땅에 사십 일 동안 계속된 지라 물이 많아져 방주가 땅에서 떠올랐고 18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치매 방주가 물 위에 떠 다녔으며 19 물이 땅에 더욱 넘치매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20 물이 불어서 십오 규빗이나 오르면 산들이 잠긴지라 21 땅 위에 움직이는 생물이 다 죽었으니 곧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이라 22 육지에 있어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23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라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으되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24 물이 백오십 일을 땅에 넘쳤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7장

7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8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 에스라 7장

27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를 송축할지라도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야훼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28 또 나로 왕과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도다 내 하나님 야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 오게 하였노라

## 사도행전 7장

59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60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창세기 7:1-24

##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물 심판

### 방주로 들어간 노아 가족(1-9절)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유는 홍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아는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운 자"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습니다. 하나님은 정결한 짐승은 암수 일곱 쌍씩, 부정한 짐승은 암수 한 쌍씩 방주로 데려가라고 지시하십니다. 이는 창조 질서의 보존과 함께, 후에 제사에 사용될 정결한 짐승들을 더 많이 보존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모든 것을 행했습니다. 이는 노아의 절대적인 순종을 보여줍니다.

### 심판과 구원(10-24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됩니다. "큰 깊음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는 표현은 대홍수의 규모와 격렬함을 생생하게 묘사합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생물들이 방주에 들어갔음이 다시 한 번 강조됩니다. 이는 구원 받은 자들의 명단을 확실히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야훼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는 구절은 중요합니다. 이는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행위임을 나타냅니다. 노아는 순종했지만, 궁극적으로 그를 구원한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창세기 8:1-19 대홍수의 종료

##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냄

1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매 물이 줄어들었고 2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3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백오십 일 후에 줄어들고 4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렛날에 방주가 아라랏 산에 머물렀으며 5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6 사십 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7 까마귀를 내놓으매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8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9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밭 풀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10 또 칠 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매 11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12 또 칠 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매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 땅 위에 물이 건짐

13 육백일 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건진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건졌더니 14 둘째 달 스무이렛날에 땅이 말랐더라 15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16 너는 네 아내와 네 아들들과 네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17 너와 함께 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18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19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8장

8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9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 에스라 8장

21 그 때에 내가 아하와 강 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 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 사도행전 8장

7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8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창세기 8:1-19

## 대홍수의 종료

### 비둘기와 까마귀를 내보냄(1-12절)

창세기 8장은 대홍수 이후의 상황을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 시대 물이 줄어들었고"(1절)라는 구절은 하나님의 자비와 신실하심을 보여줍니다. '기억하다'는 것은 단순히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냅니다.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을 막으심으로 물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40일을 더 기다린 후, 노아는 방주의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까마귀는 물이 마르기까지 날아다녔습니다. 이어서 노아는 비둘기를 세 번에 걸쳐 내보냅니다. 첫 번째는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돌아왔고, 두 번째는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으며, 세 번째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 땅 위에 물이 건짐(13-19절)

노아가 601세 되던 해 첫째 달 첫째 날에 땅에서 물이 건졌습니다. 노아는 방주 뚜껑을 열고 지면이 건진 것을 확인했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렸습니다. 둘째 달 27일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 그리고 모든 동물들이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끝나고 새로운 창조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9:1-17**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

**1**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2**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3**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 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4**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 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5**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6**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7**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8**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한 아들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9**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10** 너희와 함께 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 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는 하나님**

**11**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12**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 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13**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와 세상 사이의 언약의 증거니라 **14**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15** 내가 나와 너희와 및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사이의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육체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16**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17**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9장**

**22**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에스라 9장**

**5**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겹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야훼를 향하여 손을 들고

**사도행전 9장**

**40**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 읽기 가이드

창세기 9:1-17

### 하나님이 노아와 언약을 세우시다

####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하나님(1-10절)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노아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노아는 아담과 마찬가지로 모든 짐승들을 다스릴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 모두 한 가지 금지 명령과 더불어 먹을 양식을 허락받습니다. 홍수의 심판 이후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고, 노아는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됩니다. 온 인류는 홍수로 인해서 모든 생명이 멸절되었기 때문에 무지개를 보며 하나님의 자비하심 보며 생명의 소중함을 갖게 될 것입니다.

#### 언약의 증거를 보여주시는 하나님(11-17절)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보여주신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움을 알려주셨습니다. 홍수 전에는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무지개가 필요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홍수 후에 구름이 걷히면 빛의 굴절로 인해 무지개를 보는 현상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이어지는 하나님의 신실함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자신의 약속에 대한 표적과 증거를 나타내시기도 합니다. 무지개으로써 다시는 세상을 물로 심판하지 않으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11:1-26**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 잘못된 탑으로 흩어져버리는 사람들

**1**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2** 이에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시날 평지를 만나 거기 거류하며 **3**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4**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5** 야훼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6** 야훼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 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다 **7**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8**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쳤더라 **9**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야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야훼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 노아의 장남 셈의 족보

**10** 셈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셈은 백 세 곧 홍수 후 이 년에 아르박삿을 낳았고 **11** 아르박삿을 낳은 후에 오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2** 아르박삿은 삼십 오 세에 셀라를 낳았고 **13** 셀라를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4** 셀라는 삼십 세에 에벨을 낳았고 **15** 에벨을 낳은 후에 사백삼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6** 에벨은 삼십사 세에 벨렉을 낳았고 **17** 벨렉을 낳은 후에 사백삼십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18** 벨렉은 삼십 세에 르우를 낳았고 **19** 르우를 낳은 후에 이백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0** 르우는 삼십이 세에 스룩을 낳았고 **21** 스룩을 낳은 후에 이백칠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2** 스룩은 삼십 세에 나홀을 낳았고 **23** 나홀을 낳은 후에 이백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4** 나홀은 이십구 세에 데라를 낳았고 **25** 데라를 낳은 후에 백십구 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26** 데라는 칠십 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0**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에스라 10장**

**1**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사도행전 10장**

**2**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창세기 11:1-26

## 바벨탑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

### 잘못된 탑으로 흩어져버리는 사람들(1-9절)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탑을 건립하고자 했던 동기를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자, 성과 대를 쌓아 대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자.”(4절) 그러나 사람이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은 받았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이었음을 간과 했던 것입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생각은 실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과 하나님간의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과 견주려 하였고 그것은 사람의 교만을 나타내는 일이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큰 죄악입니다. 사람은,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사랑해야 합니다.

### 노아의 장남 셈의 족보(10-26절)

창세기 7:11에 홍수가 노아 600세 2월에 시작되었다고 말하므로 셈은 노아가 502세 때 낳은 아들입니다. 본문은 셈의 자손에 대해 말하고 있으며 성경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셈의 자손 중에 아브라함을 택하시는 이야기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세상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12:1-16** 야훼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되는 아브람

**1**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 줄 땅으로 가라 **2**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4** 이에 아브람이 야훼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칠십오 세였더라 **5** 아브람이 그의 아내 사래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6** 아브람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레 상수리나무에 이르니 그 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7**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야훼께 그가 그 곳에서 제단을 쌓고 **8** 거기서 베엘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엘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 곳에서 야훼께 제단을 쌓고 야훼의 이름을 부르더니 **9**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람

**10**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람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11**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래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12**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13**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14** 아브람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15**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하므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들인지라 **16**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람을 후대하므로 아브람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1장**

**5**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느헤미야 1장**

**11** 주여 구하오니 귀를 기울이사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기를 기뻐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 종이 행통하여 이 사람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옵소서 하였나니 그 때에 내가 왕의 술 관원이 되었느니라

**사도행전 11장**

**16**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났노라

창세기 12:1-16

## 야훼께서 아브람을 부르시다

### 하나님의 말씀으로 떠나게 되는 아브람(1-9절)

하나님께서서는 아브람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자신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을 나타내시고 역사를 통해서도 자신의 공의의 통치를 나타내시지만, 특별한 경우에 특별한 방식으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것을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내용들은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과 행위의 기준과 규범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람과 그의 아버지 데라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나 제2의 고향인 하란은 우상숭배의 땅이었습니다(수 24:2).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경건한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뜻은 우리가 모든 죄를 버리고 경건하고 의롭고 선하게 사는 것임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신 것은 분리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이 든 친척들과의 관계 속에서 아브람은 죄악 된 전통과 풍습을 완전히 떠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에게 새 가문의 시작이 필요하였고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한 큰 민족을 만들기를 원하셨으며 그들에게 한 땅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 애굽으로 내려가는 아브람(10-16절)

아브람은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아내 사래를 누이라 속이게 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람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행하지 않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범죄와 실수에서 그를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13:1-18**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아브람**

**1**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게브로 올라가니 **2**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3** 그가 네게브에서부터 길을 떠나 벨엘에 이르며 벨엘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4**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야훼의 이름을 불렀더라 **5**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6**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7**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8**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9**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나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10**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야훼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야훼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11**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12**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3** 소돔 사람은 야훼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14**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15**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16** 내가 네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대 네 자손도 세리라 **17**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 보라 내가 그것을 네게 주리라 **18**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야훼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2장**

**28**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느헤미야 2장**

**18**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사도행전 12장**

**5**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창세기 13:1-18

## 아브람과 롯이 서로 떠나다

###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는 아브람(1-11절)

아브람은 조카 롯에게 우리가 한 골육이니 서로 다투지 말고 헤어지자고 제안합니다.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지 않고 서로 이해하며 서로 위하고 사랑한다면 가장 이상적이겠지만, 사람의 연약성 때문에 때때로 그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좋은 사람들 간에도 부득이 서로 헤어지는 것이 필요한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함께 있으면서 서로 다투는 것보다 헤어져서 서로 다투지 않는다면 그것이 더 나을 것입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말합니다. 아브람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아브람의 넓은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으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아브람을 더 축복해 주십니다.

### 눈을 들어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12-18절)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동서남북 어떤 땅이든 바라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어떤 땅이든 관계없이 네가 바라보고 가는 땅을 하나님은 축복하여 주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선택이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분의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주실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14:8-24**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

**8**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더니 **9**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고임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 네 왕이 곧 그 다섯 왕과 맞서니라 **10** 싯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에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매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13**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람에게 알리니 그 때에 아브람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수풀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람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하다**

**17** 아브람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 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웨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며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라도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21** 소돔 왕이 아브람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야훼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23**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 배, 어떤 것은 육십 배, 어떤 것은 삼십 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느헤미야 3장**

**1** 그 때에 대제사장 엘리아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벽하였고

**사도행전 13장**

**33**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창세기 14:8-24

## 아브람이 롯을 구하다

###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8-16절)

아브람은 평소 집에서 기르고 훈련 시켰던 318명과 함께 롯을 구출하기 위해 북방 나라의 왕들을 뒤쫓아 갔습니다. 그와 동맹했던 아넬과 에스골과 마르레도 거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아브람은 평소에 자신의 방어를 위해 종들을 훈련 시켰습니다. 그리고 밤을 타서 그들을 쳐서 파했고 다메섹 북편에 있는 호바까지 쫓아가서 모든 빼앗긴 재물과 조카 롯과 그 재물과 부녀들과 사람들을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그의 조카 롯을 위해 자기 목숨의 위험을 무릅썼던 아브람의 사랑과 용기를 잘 나타냅니다. 아브람의 믿음은 헌신적 사랑과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 멜기세덱이 아브람에게 축복하다(17-24절)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그 얻은 것에서 10분 1을 주었습니다. '그 얻은 것에서'라는 말은 원문에 '모든 것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성경에서 최초로 십일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십일조는 10분의 1이라는 뜻입니다. 아브람이 드린 최초의 십일조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멜기세덱은 신비한 인물입니다. 그는 아브람을 힘껏 축복해 줍니다. 히브리서 7:1-3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었다고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이 땅에 오신 평강의 왕이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15:1-17** 야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지극히 큰 상급을 받는 아브람**

**1** 이 후에 야훼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람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2** 아브람이 이르되 주 야훼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3** 아브람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4** 야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못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6** 아브람이 야훼를 믿으니 야훼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7**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네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 낸 야훼니라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

**8** 그가 이르되 주 야훼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9**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삼 년 된 암소와 삼 년 된 암염소와 삼 년 된 숫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10** 아브람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개진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11** 술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람이 쫓았더라 **12** 해 질 때에 아브람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13**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사백 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14**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5**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16** 네 자손은 사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17** 해가 저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4장**

**31**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느헤미야 4장**

**14**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4장**

**15**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 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창세기 15:1-17

## 야훼께서 아브람과 언약을 세우시다

### 지극히 큰 상급을 받는 아브람(1-7절)

아브람이 조카 롯을 구출하고 돌아온 후 하나님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람에게 임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에게 “아브람아,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람은 환상 중에 하나님을 뵈옵게 되니 두려웠을 것이며 또 북방 연합군이 다시 쳐들어올지 모른다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의 두려움을 제거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나는 너의 방패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방패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침략자들의 공격을 막아 주시고 그를 지켜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아브람에게 “너의 상은 매우 크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아브람이 조카 롯을 위해 행한 헌신적 수고와 전쟁노획물에 욕심을 부리지 않은 선한 행위에 대해 큰 상을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작은 선행에 대해서도 상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 땅을 기업으로 받는 하나님의 약속(8-17절)

하나님은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는 모습을 보여주심으로써 아브람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하셨던 하나님 나라 회복의 약속(창12:1-3)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이 언약식은, 언약을 파기하는 자가 언약의 저주대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간의 언약 파기에 대한 값을 지불하시기 위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아브라함 언약이 온전히 성취됩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 언약은 하나님 편에서 홀로 맺는 ‘은혜 언약(편무언약)’이라고 불립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의 자손이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어 이방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며 그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심으로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올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다 이루어집니다.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오랜 세월이 흘러야 이루어질 것이었지만, 출애굽 후 그대로 이루어졌음을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창세기 16:1-16 하갈과 이스마엘

## 도망가는 하갈

**1** 아브람의 아내 사래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2**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래의 말을 들으니라 **3** 아브람의 아내 사래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십 년 후였더라 **4** 아브람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 사래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야훼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6** 아브람이 사래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매 사래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래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 여종인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

**7** 야훼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 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8** 이르되 사래의 여종 하갈아 네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래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9** 야훼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네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10**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네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11** 야훼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네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야훼께서 네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12**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13**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뵈었는고 함이라 **14** 이러므로 그 샘을 브엘라해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15** 하갈이 아브람의 아들을 낳으며 아브람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16** 하갈이 아브람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람이 팔십육 세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15장

**28**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오니라

## 느헤미야 5장

**19** 내 하나님이며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 사도행전 15장

**35**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창세기 16:1-16

## 하갈과 이스마엘

### 도망가는 하갈(1-6절)

학대를 받던 하갈은 사래의 얼굴을 피해 집을 나와 도망치게 됩니다. 학대받는 자가 도망치고 싶은 것은 사람의 당연한 감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학대는 자신이 스스로 가져온 결과였습니다. 그가 여주인을 멸시하지 않았더라면 그런 학대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실상 도망칠 일이 아니었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겸손히 여주인 사래에게 복종했어야 할 일이었지만, 그는 도망을 가게 됩니다.

### 여종인 하갈을 돌보시는 하나님(7-16절)

야훼의 사자께서 하갈을 직접 만나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본문의 야훼의 사자는 단순한 천사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그는 “내가 네 자손으로 크게 번성케 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또 13절에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야훼의 이름을”이라는 말씀을 보면, 그는 구약시대에 종종 나타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하갈은 자기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의 이름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는 주인집에서 도망쳐 나올 때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하고 외로웠겠지만 야훼의 사자를 만났을 때에는 기뻐했을 것입니다. ‘브엘라해로이’는 ‘나를 보시는 살아계신 자의 샘물’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의 사건들은 사람이 지어낸 허구적 내용이 아닌 역사적으로 진실한 내용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17:1-16** 할례: 언약의 표징**내 언약을 지키라**

**1** 아브람이 구십구 세 때에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2**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3** 아브람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4**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5** 이제 후로는 네 이름을 아브람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6**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네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네게로부터 나오리라 **7**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8**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 언약**

**9**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10**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2**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팔 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13**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14**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15**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내 사래는 이름을 사래라 하지 말고 사라라 하라 **16**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가 네게 아들을 낳아 주게 하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리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느헤미야 6장**

**16**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앎이니라

**사도행전 16장**

**24**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차꼬에 든든히 채웠더니 **25**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창세기 17:1-16

## 할례: 언약의 표징

### 내 언약을 지키라(1-8절)

하나님께서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은 민족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 그 대대의 자손들 사이에 세워지는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 언약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또 그는 아브라함이 지금 거하는 가나안 땅을 그들의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 열방을 향한 아브라함 언약(9-16절)

하나님께서서 또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언약을 지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지켜야 할 내용은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는 명령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할례의 명령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의 명령은 아브라함의 자손 중 남자에게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또한, 10절에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이 민족적 성격을 넘어섬을 보여줍니다. 여기에 ‘너희’라는 말 속에는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아들 이삭뿐 아니라, 이스마엘과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있는 다른 종들까지도 포함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초민족적 성격을 보입니다. 이런 점에서 아브라함의 언약은 신약시대에 있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유대인을 넘어 이방인에게 복음의 빛을 계시하여 예수를 믿는 온 열방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시는 은혜를 베풀어주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18:16-33** 의와 공도를 행하는 언약백성**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

**16**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17**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18**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19**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20** 야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21**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22**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야훼 앞에 그대로 섰더니 **23**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24** 그 성 중에 의인 오십 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 곳을 멸하시고 그 오십 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25**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26**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오십 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27**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28** 오십 의인 중에 오 명이 부족하다면 그 오 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29**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사십 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사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0**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삼십 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1**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이십 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이십 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32**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십 명을 찾으면 어찌 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십 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33** 야훼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7장**

**20**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느헤미야 7장**

**2**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사도행전 17장**

**11** 베뢰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창세기 18:16-33

## 의와 공도를 행하는 언약백성

### 야훼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라(16-21절)

본문에 등장한 세 사람은 소돔을 향해 떠나기 전 비로소 아브라함을 방문한 목적을 밝힙니다(16-21절). 하나님은 당신께서 하시려는 것을 그의 언약백성인 아브라함에게 알려 주시려 합니다. 그 이유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크고 강대한 나라가 세워지고, 또한 땅의 모든 나라들이 복을 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19절). 크고 강대한 그 나라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18절).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부르셔서 바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 가시려는 위대한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나라의 언약백성인 아브라함은 반드시 야훼의 도, 즉 그 나라의 법도인 의와 공도를 지켜 행해야 합니다(19절).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의롭고 바른 일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소서(22-33절)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걱정하며 다가올 소돔의 멸망에 관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아브라함은 소돔의 멸망에 의인들이 포함될 수 있음을 염려합니다. 그는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하신다는 확신을 구하려 합니다. 그는 이 문제를 하나님께 묻는 것이 합당치 않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27절) 담대히 질문하며, 단계적으로 성안의 의인의 숫자를 50명에서 10명으로 점차 줄여갑니다. 하나님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우셨기 때문에 그는 10명에서 숫자를 멈춥니다. 하나님의 방문은 멸망이 그들의 죄악에 대한 형벌임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시기 전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을 엄격하고 면밀하게 살펴보셨기에, 그 심판은 공의로운 심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창세기 19:12-29 심판 속에서의 구원

##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12**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13**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야훼 앞에 크므로 야훼께서 이 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14**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야훼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 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15**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 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16**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야훼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던라 **17**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 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18**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옵소서 **19**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20**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 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21**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네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네가 거기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

**23**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24** 야훼께서 하늘 곧 야훼께로부터 유향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25**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덮어 멸하셨더라 **26**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기둥이 되었더라 **27**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야훼 앞에서 있던 곳에 이르러 **28**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웅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29** 하나님께서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앞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앞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18장

**35**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 느헤미야 8장

**18**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 사도행전 18장

**9**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0** 내가 너와 함께 있을 때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창세기 19:12-29

## 심판 속에서의 구원

###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12-22절)

롯의 사위들은 소돔이 멸망한다는 경고를 듣고 비웃기만 합니다. 롯은 자신도 탈출하기를 주저하여 천사가 그의 손을 잡고 탈출해야만 했습니다. 롯과 그 아내와 두 딸이 멸망하는 그곳에서 건짐 받아 구원을 얻은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자비를 더하셨기 때문입니다(16절). 한편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롯은 근처의 소알이라는 다른 성읍으로 도망하게 해달라고 간청합니다(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속했던 롯을 구원해주셨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악의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공의로운 거룩하심에 따라 심판하시는 분이심과 동시에, 택하여 부르신 언약의 자손들과 맺으신 언약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언약을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역사는 심판 속에서도 그분의 백성들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에 따라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임을 늘 신뢰하며 찬양해야 합니다.

### 세상과 동화되지 말라(23-29절)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려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이에 소돔과 고모라는 인간의 타락과 동의어가 되었습니다(사1:9, 애4:6, 마11:23-24, 계11:8). 이 배경에서 롯의 구원은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남은 의인들을 지켜보고 계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롯의 아내는 돌아보지 말라는 지시에 불순종하여 결국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이는 롯의 아내도 소돔 사람들에게 동화되어 그들 중 하나가 되었음을 암시합니다. 그녀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생생한 경고가 됩니다.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리하리라...롯의 처를 기억하라”(눅17:29-32)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20:1-18**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1 아브라함이 거기서 네게브 땅으로 옮겨가 가데스와 술 사이 그탈에 거류하며 2 그의 아내 사락을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그탈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 사락을 데려갔더니 3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데려간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네가 죽으리니 그는 남편이 있는 여자임이라 4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대답하되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5 그가 나에게 이는 내 누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 여인도 그는 내 오라비라 하였사오니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하였나이다 6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 내게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함이 이 때문이니라 7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는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니 네가 살려니와 네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네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줄 알지니라

**언약백성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언약**

8 아비멜렉이 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모든 종들을 불러 그 모든 일을 말하여 들려 주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였더라 9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내가 무슨 죄를 네게 범하였기에 네가 나와 내 나라가 큰 죄에 빠질 뻔하게 하였느냐 네가 합당하지 아니한 일을 내게 행하였도다 하고 10 아비멜렉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가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였느냐 11 아브라함이 이르되 이 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으니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음이요 12 또 그는 정말로 나의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음이니라 13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의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에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 후로 우리의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라비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었노라 14 아비멜렉이 양과 소와 종들을 이끌고 아브라함에게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보내고 15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땅이 네 앞에 있으니 네가 보기에 좋은 대로 거주하라 하고 16 사라에게 이르되 내가 은 천 개를 네 오라비에게 주어서 그것으로 너와 함께 한 여러 사람 앞에서 네 수치를 가리게 하였노니 네 일이 다 해결되었느니라 17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을 치료하시 출산하게 하셨으니 18 아훼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의 모든 태를 단으셨음이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느헤미야 9장**

6 오직 주는 야훼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일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 나이다

**사도행전 19장**

4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6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므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창세기 20:1-18

##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

### 아브라함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1-7절)

그랄 왕이 사라를 취한 사건은 그녀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언약을 위협합니다. 그렇기에 이 사건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언약백성 아브라함과 사라를 눈동자처럼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사라가 바로에게 끌려간 이야기(창12:10-20)를 기반으로 하여, 아비멜렉이 사라와 육체적으로 접촉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이후 이삭의 출생(21:1-7)에 비추어 볼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대목입니다. 이 사건은 창세기 20장에서 사라가 곧 나올 언약의 자손 이삭은 오직 아브라함에게서 낳은 아들이었음을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태어날 자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시고자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 언약백성의 기도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언약(8-18절)

아비멜렉은 사라를 누이로 속인 아브라함의 기만행위를 정당하게 지적합니다(9절). 아브라함은 사라가 그의 이복 누이라 말하며 자기 행동을 변명합니다. 만약 하나님의 개입이 없었다면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돌려 보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죄가 없지만 사라를 취한 일에 대해 아브라함에게 공개적으로 보상하고, 사람들에게 죄의 책임을 사라에게 돌려서는 안된다는 지침을 줍니다. 한편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 및 여종들이 치유된 것은 가임 능력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본 장은 이 다음 이야기(창21장)를 예고합니다. 본문은 아브라함이 아비멜렉 집안의 회복을 위해 기도했다는 사실을 언급함으로써, 모든 민족이 아브라함을 통해 복을 얻는다는 중심주제(창12:3)에 주의를 집중시킵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백성 아브라함의 기도를 통해 열방을 회복하시려는 구원의 계획을 이어나가고 계십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21:1-21** 하나님 백성(이삭)의 탄생으로 성취해 가시는 언약**언약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1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야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2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3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4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팔 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5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백 세라 6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7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짓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언약백성이 아닌 자가 쫓겨나다**

8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9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10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11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12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네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네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네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4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부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워 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15 가죽부대의 물이 떨어지니라 그 자식을 관목덤불 아래에 두고 16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차마 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 내어 우니 17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19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20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 그가 바란 광야에 거주할 때에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7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28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느헤미야 10장**

28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뎨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29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야훼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사도행전 20장**

31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삼 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32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

창세기 21:1-21

## 하나님 백성(이삭)의 탄생으로 성취해 가시는 언약

### 언약백성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1-7절)

하나님의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노년의 나이에 드디어 아들을 출산합니다. 이삭이 태어나는 순간,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을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창17:1) 성취하신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이삭을 낳기 1년 전까지만 해도 사라는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녀가 하나님 앞에서 속으로 웃었던 것입니다(창18:12). 그러나 약속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녀에게 하나님은 이삭을 낳게 하심으로써 그 약속을 실제로 성취해주셨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사라의 비웃음을 진정한 '웃음'으로 변화시켜주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나이와 불임을 생각할 때 이삭의 탄생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자녀)은 인간의 힘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백성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리라는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이삭의 탄생은 무엇보다 나아가 온 인류에게 오셔서 진정한 웃음(기쁨)을 선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대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구원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천국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웃게 될 것입니다.

### 언약백성이 아닌 자가 쫓겨나다(8-21절)

이삭의 탄생은 시간이 지나 이스마엘과의 갈등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에게서 상속권을 빼앗고 내쫓아달라는 사라의 요청에 결국 그들은 내쫓기게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백성과 언약백성이 아닌 자들은 함께 기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10절).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아닌 이삭을 통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구원계획이 혈통에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부르심과 선택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22:1-14** 언약백성의 순종(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

**1**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2**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일러 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3**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4** 제삼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5**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6**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이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8**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이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9**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 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벌여 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10**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11** 야훼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12**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야훼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야훼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21장**

**13**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도다 하시니라

**느헤미야 11장**

**2**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사도행전 21장**

**13**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 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창세기 22:1-14

언약백성의  
순종(믿음)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시험

##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시는 어린 양(1-14절)

오랜 시간동안 아들을 기다려온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쉽게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한 '순종의 시험'이었습니다. 시험의 2가지 의미는 이것입니다. 첫째, 약속의 자녀(하나님의 백성)가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탄생하는 것임을 확실히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었고, 둘째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반드시 '이사를 통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었습니다. 이 시험에서 아브라함은 참된 믿음을 드러냅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무 대꾸도 없이 침묵으로 순종한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대로 '오직 이사'를 통해 하나님 나라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 종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즉 그는 이사를 번제로 드러도 하나님이 다시 그를 살리시리라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히11:17-19, 롬4:17). 결국 하나님은 이사 대신에 번제로 드릴 어린 양을 친히 준비하셨습니다. 이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믿음을 친히 준비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23:1-20**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아브라함**막벨라 굴을 사려는 아브라함**

**1** 사라가 백이십칠 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햇수라 **2**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아르바에서 죽으매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3**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헛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4**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5** 헛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6**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7**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헛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8**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대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9** 그가 그의 밭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막벨라 굴**

**10** 에브론이 헛 족속 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헛 족속 곧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2**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13**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14**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5**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 값은 은 사백 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16**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헛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사백 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17**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돌린 모든 나무가 **18** 성 문에 들어온 모든 헛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되리라 **19**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20**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헛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마태복음 22장**

**37**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40**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느헤미야 12장**

**43** 이 날에 우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음이라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사도행전 22장**

**10**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네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창세기 23:1-20

##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준비하는 아브라함

### 막벨라 굴을 사려는 아브라함(1-9절)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4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대한 적절한 소유권이 없음을 인정합니다. 지난 62년 동안 그는 반농반목의 생활 방식을 택하고 가나안의 어떤 마을에도 정착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헤브론 근처의 특정한 땅에 대한 영구적 소유권을 갖고자 희망합니다.

사라의 죽음에 관한 이 이야기가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이 헤브론 마을 근처에 작은 땅(막벨라 굴)을 사들이기 때문입니다. 매장지로 사용된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영구적 소유가 되며, 이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할 그들의 미래가 가나안 땅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 막벨라 굴(10-20절)

아브라함은 자신과 사라, 그리고 자신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약속대로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리라는 믿음과 소망으로 막벨라 굴을 매입했습니다. 즉 아브라함이 산 땅은 장차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게 될 가나안 땅에 대한 전조였던 것입니다.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받았지만 그 일부분인 막벨라 굴만을 소유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에서, 언약의 말씀들이 장차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즉 막벨라 굴 매입은 반드시 주어질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회복에 대한 보증이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믿음의 눈으로 영원한 본향을 바라보며 소망해야 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잠시 있다 안개처럼 사라지는 이 땅이 아닌,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기 때문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창세기 24:1-15** 언약백성의 후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는 아브라함

**1**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야훼께서 그에게 범사에 복을 주셨더라 **2** 아브라함이 자기 집 모든 소유를 맡은 늙은 종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 허벅지 밑에 네 손을 놓으라 **3** 내가 너에게 하늘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이신 야훼를 가리켜 맹세하게 하노니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4**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5** 종이 이르되 여자가 나를 따라 이 땅으로 오려고 하지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이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6** 아브라함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을 그리로 데리고 돌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라 **7** 하늘의 하나님 야훼께서 나를 내 아버지의 집과 내 고향 땅에서 떠나게 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 땅을 네 씨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그가 그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실지라 내가 거기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지니라 **8** 만일 여자가 너를 따라 오려고 하지 아니하면 나의 이 맹세가 너와 상관없나니 오직 내 아들을 데리고 그리로 가지 말지니라 **9** 그 종이 이에 그의 주인 아브라함의 허벅지 아래에 손을 놓고 이 일에 대하여 그에게 맹세하였더라

###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

**10** 이에 종이 그 주인의 낙타 중 열 필을 끌고 떠났는데 곧 그의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러 **11** 그 낙타를 성 밖 우물 곁에 꿰렸으니 저녁 때라 여인들이 물을 길으러 나올 때였더라 **12**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훼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13** 성 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으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서 있다가 **14**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너는 물동이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말미암아 주께서 내 주인에게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15**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브두엘의 소생이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23장

**23**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드리되 율법의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 느헤미야 13장

**14**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 사도행전 23장

**11** 그 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24:1-15

## 언약백성의 후손을 이어가시는 하나님의 섭리

### 이삭의 아내를 찾으려는 아브라함(1-9절)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이야기는 특별히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에게 인도되는 것을 강조합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언약을 이어가도록 종을 통해 아내를 얻어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땅을 떠나지 않고 가나안 땅의 여인과 통혼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종을 친족에게로 보냈습니다. 창세기는 대체로 가나안 족속을 부정적으로 묘사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렇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이 가나안 족속 출신 아내를 맞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아브라함의 종은 브두엘의 딸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구해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 이삭과 리브가의 만남을 예비하신 하나님(10-15절)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그의 종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종은 하나님께 이삭의 아내가 될 여자에게 인도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는 그에게 첫 번째 우선순위였습니다. 종은 나그네를 환대하고 충실히 일하는 여자를 찾습니다. 낙타 열 필(10절)은 상당한 양의 물을 필요로 합니다. 이삭의 결혼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가나안 족속과 섞이지 않는 것과 이삭이 가나안 땅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장차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가나안 족속의 딸은 이삭의 아내로 합당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15:16). 이로써 아브라함은 말년에 하나님의 언약의 중요한 요소인 땅(창23장)과 후손(창24장)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의 보증을(창15:18-21)을 신뢰하며, 그의 후손이 가나안 땅을 물려받을 것으로 확신했던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창세기 25:19-34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

19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20 이삭은 사십 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21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야훼께 간구하매 야훼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22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야훼께 묻자 온대 23 야훼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24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25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26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육십 세였더라

##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

27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9 야곱이 죽을 썬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30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31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32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33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34 야곱이 떡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이였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마태복음 24장

42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 에스더 1장

1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백이십칠 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2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 궁에서 즉위하고 3 왕위에 있는 지 제삼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 와 메대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 사도행전 24장

14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15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리라 함이니이다 16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창세기 25:19-34

##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다(19-26절)

창세기 25-36장의 이야기는 이삭의 쌍둥이 아들과 리브가 사이의 긴장관계를 다룹니다. 여기서 두 아이는 어머니 배 속에서 서부터 서로 다투었으며(22-23절), 이는 야곱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도피해야 하는 큰 싸움을 예고합니다(창27:41-28:5). 이 싸움의 핵심은 누가 아브라함 언약(약속)의 상속자가 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장자권은 에서에게 있지만 그는 그 권리를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여기고 죽 한 그릇에 그것을 동생에게 팔아버립니다. 에서는 멋대로 야곱에게 장자권을 팔고 가나안 족속 여인과 통혼하여 언약 백성이 아님을 스스로 증명한 것입니다. 이로써 본문은 하나님께서 차자 야곱을 택하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언약백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있음을 보여주십니다.

###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긴 에서(27-34절)

형의 장자권을 사려는 야곱의 열망은 그의 움켜쥐려는 본성을 보여주지만, 에서는 죽 한 그릇에 장자의 지위와 관련된 유익을 팔아버림으로써 하나님이 그의 혈통에 약속하신 모든 것에 대한 경멸을 드러냅니다. 야곱이 장자권을 획득한 방법은 그리 바람직하지 않지만, 적어도 그는 그 권리의 가치를 알았던 것입니다. 이 짧은 이야기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앞선 23절의 예고를 기반으로 야곱과 에서의 나머지 이야기에 긴 그림자를 드리웁니다.

이 이야기는 신약에서도 인용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구속사)의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주권적인 뜻대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하나님 나라 언약백성으로 택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히 합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시’(롬9:10-11)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마태복음 25:1-13 열 처녀 비유

## 신량을 맞으러

1 그 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량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2 그 중의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 자라 3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4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5 신량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 기름을 채워라

6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량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7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8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9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10 그들이 사라 간 사이에 신량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11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 주소서 12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13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창세기 26장

4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 에스더 2장

15 모르드개의 삼촌 아비하일의 딸 곧 모르드개가 자기의 딸 같이 양육하는 에스더가 차례대로 왕에게 나아갈 때에 궁녀를 주관하는 내시 헤게가 정한 것 외에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모든 보는 자에게 사랑을 받더라

## 사도행전 25장

11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대

## 읽기 가이드

마태복음 25:1-13

### 열 처녀 비유

#### 신랑을 맞으러(1~5절)

유대인들의 혼인 예식은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신랑이 신부 집에 가서 신부를 취하고 일정한 종교 의식을 거행합니다. 그 후 그는 신부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서 잔치를 계속합니다. 오늘 신랑이 올 것을 기다린 신부들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신랑이 오는 것이 더더지자 신부들이 즐고 있던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은 제자들이 예상했던 것처럼 빨리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기름을 채워라(6~13절)

재림을 대비하는 성도의 자세에 관한 3번째 비유에서 성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성도들을 하나님 나라의 어린 양 혼인 잔치에 인도하시기 위해 재림하실 때에, 성도들은 철저히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본문의 내용과 같이 졸다가 신랑이 오는 소리에 깨어나는 마지막 순간에는 결코 기름을 사오거나 빌어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매일 주님과 더불어 갖는 지속적인 영적 교제야말로 재림을 준비하는 가장 좋은 자세라 할 수 있습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태복음 26:1-16**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예수의 네 번째 수난 예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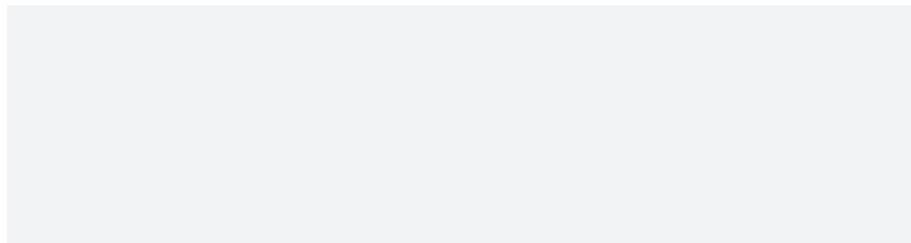
**1**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2**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들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3** 그 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4** 예수를 흥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5** 말하기를 민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향유를 부은 여인**

**6**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7**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한 옥합을 가지고 나아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8**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9**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10**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12**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13**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가롯 유다의 배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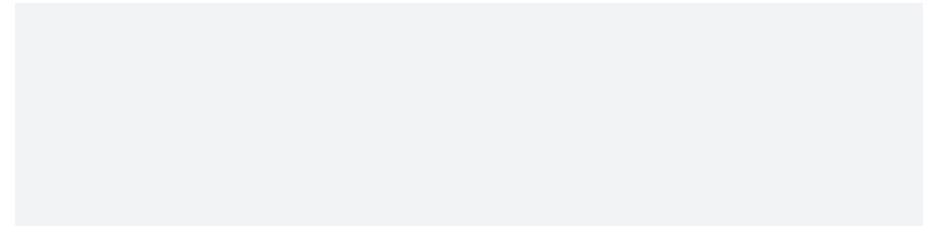
**14** 그 때에 열둘 중의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15**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 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삼십을 달아 주거늘 **16** 그가 그 때부터 예수를 넘겨 줄 기회를 찾더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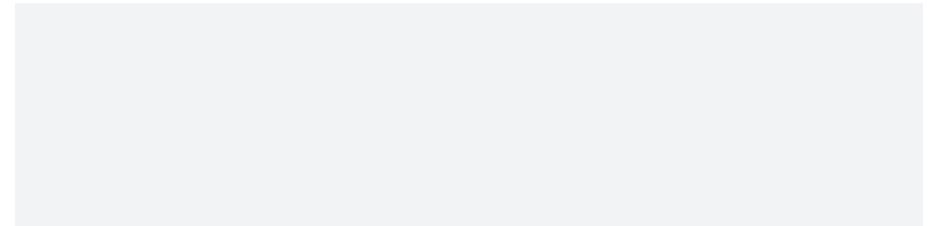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27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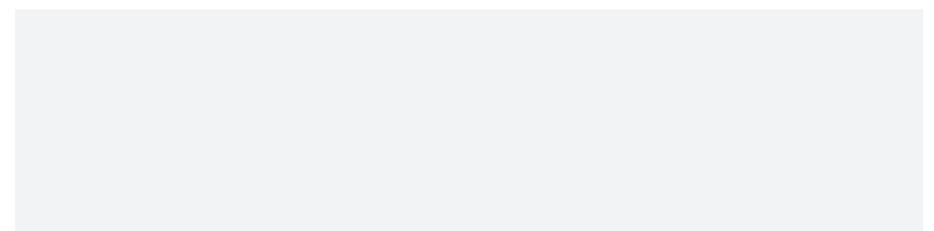
**42**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리매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43**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버니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44**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에스더 3장**

**2** 대궐 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 절하되 모르드개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사도행전 26장**

**16**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마태복음 26:1~16

## 죽음을 준비하시는 예수

### 예수의 네 번째 수난 예고(1~5절)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이 꾸미고 있는 음모가 점점 구체화 되고 있는 시점에서 다시 한 번 예수의 십자가 수난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유월절은 바로 어린 양의 희생 제사를 드리는 날이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제물과 같이 이스라엘과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실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향유를 부은 여인(6~13절)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임박한 예수의 장례를 준비하는 값지고 의미 있는 행위였습니다. 옥합을 깨뜨려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여인을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인의 행위는 칭찬받았고 그의 이름은 후대에 널리 알려지도록 예언되었습니다. 또한 아무도 하지 못했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참으로 귀한 섬김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할 정도의 헌신과 희생의 상황이 생길 때, 우리는 이 여인을 생각하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가롯 유다의 배반(14-16절)

가롯 유다는 은 삼십에 대제사장들에게 예수님을 넘겨주어 주를 배반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가 배반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온 인류의 구속을 이루신 일은, 전적인 하나님의 계획이었지만 동시에 유다와 같은 악한 자들의 범죄가 가담한 일이기도 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마태복음 27:1-14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 두 번째 산헤드린 재판

1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2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주니라

## 가롯 유다의 죽음

3 그 때에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삼십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4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나 네가 당하라 하거늘 5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 6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핏값이라 성전고에 넣어 둬야 옳지 않다 하고 7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8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9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삼십을 가지고 10 토기장이의 밭 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 빌라도의 신문

11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하시고 12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13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14 한 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창세기 28장

21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야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22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십분의 일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 에스더 4장

16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 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 사도행전 27장

24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다 하였으니

마태복음 27:1-14

##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 두 번째 산헤드린 재판(1~2절)

산헤드린은 금요일 아침 일찍이 두 번째 모임을 개최하였습니다. 유대 법에 따르면 중대한 범죄 사안에 대한 두 번의 재판은 적어도 하루 정도 시간을 두고 소집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단락의 두 번째 모임은 이전 결정을 비준하고, 민란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를 로마 당국자들에게 넘겨줄 기회를 찾기 위하여 소집되었습니다. 원칙적으로 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정부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산헤드린은 자신들이 원하는 사형을 언도하기 위해서 모의하였던 것입니다. 산헤드린은 계락을 꾸민 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었습니다.

### 가롯 유다의 죽음(3~10절)

마태복음의 저자는 아마도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과 대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유다에게 일어났던 일을 전체 이야기 사이에 삽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하여 마태복음의 저자는 유다의 배반과 자살, 그리고 베드로의 예수 부인이 각각 예수의 예언을 성취한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회개의 눈물과 유다의 절망적인 자책과 자살은 잘 대조됩니다. 유다의 자살 사건에 초점을 맞추는 마태복음의 저자는 베드로가 인간적인 두려움 때문에 순간적인 실책을 범한 것과 달리 유다는 고의적으로 예수를 배교하였으며 그 결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음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 빌라도의 신문(11-14절)

예수님은 자신이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빌라도의 말을 통해 확증하십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의 침묵에 크게 놀라게 됩니다. 이 모습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되, 아무 말도 없이 죽음의 길을 가는 어린 양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렇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아무 말 없이 순종의 길을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마태복음 28:1-15 살아나시다

## 예수님이 부활하심

1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2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러 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3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 같이 희거늘 4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5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6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 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7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뵈오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8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달음질할새 9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10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 경비병의 보고

11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12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13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14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15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창세기 29장

35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 에스더 5장

1 제삼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 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 문을 대하여 왕좌에 앉았다가 2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우므로 손에 잡았던 금 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 규 끝을 만진지라

## 사도행전 28장

30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 없이 가르치더라

## 읽기 가이드

마태복음 28:1-15

### 살아나시다

#### 예수님이 부활하심(1~10절)

본 단락은 예수의 부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생전에 미리 예언하신대로 삼일 만에 부활하였으나 빈 무덤과 천사를 본 여인들은 두려워 하였습니다. 마태가 증언하고 있는 이 이야기의 핵심은 첫째, 예수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요, 둘째,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는 사실에 있습니다.

#### 경비병의 보고(11~15절)

본 단락은 마태복음에서만 기록되는 내용이며, 예루살렘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로서는 마지막에 해당합니다. 예루살렘의 대제사장과 장로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한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기쁨과 감격 속에서 만난 것과는 대조적으로, 어두움의 도시 예루살렘에서 여전히 예수를 적대하여 로마 군병들에게 뇌물을 주고 예수의 부활 사건을 은폐시키고자 하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이 일을 숨기려 하고 군병들의 증언이 왜곡되어 전해지지만, 이들의 잘못된 증언에 의해 알 수 있는 것은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것이 확실하며 이것은 오히려 예수의 부활을 확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묵상 노트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한 묵상을 정리해 보세요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마가복음 1:1-20 복음을 전파하다

## 침례 요한의 사역

1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2 선지자 이사야의 글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준비하리라 3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과 같이 4 침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전파 하니 5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 강에서 그에게 침례를 받더라 6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 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7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8 나는 너희에게 물로 침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침례를 베푸시리라

## 시험을 받으시다

9 그 때에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 강에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고 10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11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12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13 광야에서 사십 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다

14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15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16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7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18 곧 그물을 버려 두고 따르니라 19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깎는데 20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 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창세기 30장

27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 에스더 6장

9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 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 로마서 1장

17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마가복음 1:1-20

## 복음을 전파하다

### 침례 요한의 사역(1~8절)

침례 요한은 구속사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인물입니다. 도래할 메시아 시대의 길을 준비하는 메시아의 선구자인 요한의 출현은 종말론적 시간이 다가왔으며 구속사에 있어서 결정적인 전환점이 가까웠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가는 침례 요한, 즉 메시아 시대의 도래를 예비하는 사자에 대한 구약의 예언을 인용하여 메시아가 도래하였으며 하나님의 기쁜 구원이 임하였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침례 요한의 등장과 그가 행하는 사역 자체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실 복음의 전조이며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알리는 나팔입니다.

### 시험을 받으시다(9~13절)

예수께서는 침례 요한에게 물침례를 받으심으로 자신의 사역에 대한 하늘의 공인을 드러내셨으며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광야에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광야로 인도되심은 침례의 불가피한 결과입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그에게 강림하신 동일한 성령께서, 지금은 광야로 그를 몰아내시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광야에서 사단과 대결하시고 들짐승들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에게 수종을 받으셨습니다. 마가는 예수께서 침례받는 사건 때에 성령의 임재와 광야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 천사 수종 등과 같은 일련의 사건을 기술하면서 예수의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공인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의 침례 받음과 광야에서 시험받으심은 예수의 공생애의 준비이자 시작이며 또한 요약입니다.

###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시다(14~20절)

왕이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제자들은 왕의 명령(부르심)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순종함으로 주님을 따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마가복음 2:1-17**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중풍병자를 고치심**

**1** 수 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 지라 **2**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3**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새 **4**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의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5**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6**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7**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8**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9**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10**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11**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12**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 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레위를 부르심**

**13**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시매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14** 또 지나가시다가 알패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15**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16**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17**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 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창세기 31장**

**3** 야훼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네 조상의 땅 네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에스더 7장**

**3** 왕후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여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었으며 왕이 좋게 여기시면 내 소청대로 내 생명을 내게 주시고 내 요구대로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로마서 2장**

**10**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마가복음 2:1-17

## 예수가 이 땅에 오신 이유

### 중풍병자를 고치심(1~12절)

본 단락은 중풍병자의 치유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의 초점은 중풍병자의 치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중풍병자를 치유하시는 과정에서 선언하신 죄 사함의 권한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예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지상에서 죄를 사해 주는 권한이 인자의 독특한 특권임을 확증해 주고 있습니다.

### 레위를 부르심(13~17절)

본 단락은 예수께서 당시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졌던 세리 레위를 제자로 부르시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제자를 부르는 사건의 차원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서기관의 문제 제기에서 이해될 수 있는 바와 같이 죄 용서와 죄인 그리고 예수의 사명이라는 일련의 흐름 속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전 단락에서 일어난 죄 용서의 논쟁은 예수께서 사죄권을 갖고 계심을 드러내었습니다. 이 논쟁에 이어 기록된 세리와 죄인들과의 식사 논쟁에서는 예수의 죄 사함의 권한이 실행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수는 말로만 죄 사함의 권한이 있음을 선포하지 않으셨으며 오히려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 교제하심으로 죄 사함의 권한 실행과 자신의 사명을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있습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마가복음 3:1-12 | 핍박과 종의 사역의 확장

## 손 마른 자를 고치심

1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2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3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 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4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나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5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시라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 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6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 많은 무리가 나아오다

7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8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매와 요단 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9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10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라 11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하니 12 예수께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많이 경고하시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 빈칸에 오늘의 성경읽기를 통해 말씀으로 기도해 보세요.

## 창세기 32장

28 그가 이르되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 에스더 8장

15 모르드개가 푸르고 흰 조복을 입고 큰 금관을 쓰고 자색 가는 베 겹옷을 입고 왕 앞에서 나오니 수산 성이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고 16 유대인에게는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과 존귀함이 있는지라

## 로마서 3장

24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마가복음 3:1-12

## 핍박과 종의 사역의 확장

### 손 마른 자를 고치심(1~6절)

본 단락은 예수와 대적자들 간의 갈등을 본격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는 손 마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치료를 베풀었으나 바리새인과 헤롯당은 안식일에 치유를 행하는 예수를 고발하고자 꼬투리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안식일에도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악을 행하거나 사람을 죽이는 것보다 더 옳은 것임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수가 앞으로 받게 될 핍박이 더 강화될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 많은 무리가 나아오다(7~15절)

본 단락은 예수의 1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는 요약적 설명인 동시에 1차 갈릴리 사역의 절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마가는 예수의 제1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면서 허다한 무리들이 예수를 추종하고 있으며, 예수의 귀신 축출의 사건을 기록하며 당시 대중들을 사로잡은 예수의 모습과 하나님의 아들로서 가진 예수의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직접 가서 사역하지 않은 곳에서조차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추종하게 된 것은 예수의 복음 사역이 날마다 더 확장되어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는 자신의 신적 권위를 드러냈던 것입니다.

☞ 오늘 만난 하나님, 감사와 회개할 것, 오늘의 헌신(순종) 등에 대해 자유롭게 정리해 보세요 ☜

☞ 오늘의 기도 ☜

# 회개하라

🎵 하나님 찬양하기

- 속죄하신 구세주를 298장
- 내 평생 살아온 길 308장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마태복음 3장 1-12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마태복음 3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사역의 시작점 알리는 중요한 장입니다. 침례 요한의 준비 사역과 예수님의 침례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본격적으로 펼쳐지기 시작함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장은 회개의 중요성, 하나님 나라의 임박함, 예수님의 신성과 사명을 강조하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준비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받습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오늘 본문에 침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회개를 촉구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기록해 봅시다.

**적용과 나눔** 하나님께서 신앙생활 가운데 회개해야 할 자신의 모습을 깨닫게 한 적이 있는가? 그리고 회개한 후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였는가? 나누어 봅시다.

#### 관찰과 묵상

침례요한은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음을 선포했는데 어떻게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까?

**적용과 나눔** 회개의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다지기

이스라엘에서 '열매'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의 삶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회개하지 않았고, 거짓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은 그들에게는 열매가 없었습니다.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는 저주 받고, 열매 없는 포도나무는 뽑혀 버려지는 것처럼 결국 심판받을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고 주께 돌이켜 온다면 하나님은 미쁘시사 받아주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도와주십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자신을 돌아보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2. 열매 맺는 신앙인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흩어져 버리는 사람들

🎵 하나님 찬양하기

-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 279장 인애하신 구세주여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노아의 자손들이 성과 탑을 건설하려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에게 땅을 정복하라는 명령을 하셨지만 하늘은 하나님의 영역임을 알아야 합니다.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는 생각은 실상 하나님께 도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들은 겸손히 자신들과 하나님 간의 무한한 차이를 인정하기보다 하나님과 견주려 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교만을 나타냅니다. 교만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근본적인 큰 죄악이기에 사람은, 창조자와 구원자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자랑해야 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1. 노아의 자손들이 시날평지에 모여서 한 일은 무엇인가요? (창11:4)

2. 하나님께서 바벨탑을 쌓는 자들에게 먼저 하신 일은 무엇인가요? (창11:7)

**적용과 나눔** 바벨탑을 쌓으려던 사람들은 그들의 이름들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며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결국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마음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관찰과 묵상

1. 하나님께서 그들이 도시를 건설하지 못하게 하신 방법은 무엇인가요?(창11:8)

2. 이제 그들이 건설하지 못한 도시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적용과 나눔** 바벨탑을 쌓는 일은 결과적으로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 도전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음을 생각해보며 어떠한 일들이 하나님께 도전하며 대항하는 일이었는지 서로 나누어 봅시다.

## 말씀 다지기

바벨탑 사건은 대략 세 가지 점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한 사건임을 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 그들은 자신들의 이름을 내며 스스로의 영광을 얻으려 했습니다. 두 번째로 흩어짐을 면하려고 했던 것은 홍수 이전의 죄악의 결과로 인해 그들 스스로 연합을 이루고자 했습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자신들만의 연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바벨탑은 우상 숭배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성서학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자신들의 능력으로 세워가는 그 일들은 자신 스스로를 우상으로 세워가는 잘못된 방법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우리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도록 기도합니다.
2.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의와 공도를 행하는 언약백성

## 🎵 하나님 찬양하기

-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마음 열기** 한 주간의 삶과 QT 감사 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아브라함이 뜨거운 날 장막에 앉았다가 사람 셋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였습니다. 그들을 영접하여 좋은 것으로 대접하며 심을 얻게 합니다.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이 전송하러 함께 나올 때에 하나님이 그 세 사람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무엇이 된다고 말씀하고 계신가요?(18절)

---

2.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받게 되며, 그 자녀와 권속들은 무엇을 행하게 된다고 하시나요? (18,19절)

**적용과 나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강대한 나라란 첫째로 복이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복을 받는 것을 넘어 복이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단순히 복을 받았기 때문에 강대한 나라가 아닌, 복이 될 때 비로소 강대한 나라의 면모를 갖게 됩니다. 둘째로 의와 공도를 행하게 명하는 것입니다. 강대한 나라는 그의 자녀와 권속들에게 야훼의 도를 지키도록 가르치고 명령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나는 지금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있는지,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 나눠보세요.

#### 관찰과 묵상

1.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상태에 있다고 말씀하시나요?(20절)

---

2.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 어떻게 하시겠다고 하시나요?(21절)

**적용과 나눔** 소돔과 고모라는 부르짖음에 크며 죄악이 심히 무거운 상태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도시를 심판하시기 위해 그 도시로 내려가신다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질문하며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결국 의인 열명을 찾으면, 그 열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을 깨닫고 기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나라입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경험이 있다면 나눠보세요.

### 말씀 다지기

자녀는 단순히 개인적인 영역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자녀는 강대한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로 바라보시며, 그 지식과 권속들을 통하여 강대한 나라로서 이 땅을 다스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그 강대한 나라는 하나님의 도(하나님의 마음)를 아는 것이며, 그 도를 알기에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입니다. 나와 내 자녀, 우리 교회를 통해 강대한 나라가 되는 것을 바라봅시다.

#### 말씀으로

#### 기도하기

1. 하나님의 계획과 마음을 아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기도합니다.

---

2.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강대한 나라가 되게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 🎵 하나님 찬양하기

- 420장 너 성결키 위해
- 421장 내가 예수 믿고서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창세기 25장 21절에서 3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 배경 이해하기

창세기 12장부터는 족장들의 역사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족장들의 역사 기술은 단순히 족보를 통해 사람의 이름만을 열거한 것이 아니라 족보에 기록된 사람들을 통해 기나긴 역사를 압축하고 요약하며 이스라엘의 역사를 전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창세기에서 아홉 번째로 등장하는 이삭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 그리고 이삭을 이어 언약의 후손이 어떻게 계보를 이어가는지 밝혀 주는 동시에 에서와 야곱의 생애를 조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5장까지 계속되는 이스라엘 12지파의 형성 과정의 서문입니다.

### 말씀 나누기

#### 관찰과 묵상

1. 리브가가 임신하여, 그 태 속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22절)

---

2. 리브가는 태 속에서 서로 싸우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나요? (22,23절)

**적용과 나눔** 태 속에서 쌍둥이가 격한 몸부림을 하자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한 리브가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장차 리브가가 낳을 쌍둥이를 통해 형성될 후손이 서로 반목하며 살 것이며,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장자의 권한을 절대적으로 인정하는 근동지역의 인습을 뛰어넘는 예언을 들은 리브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판단이나 조건에 따라 역사를 이끌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을 통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나타내 보이고 계십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본 일이 있나요?

#### 관찰과 묵상

1. 장성한 에서와 야곱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29-31절)

---

2. 장자의 명분을 팔라고 한 야곱에게 보인 에서의 태도는 무엇인가요?(32,34절)

**적용과 나눔**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히브리서 12장16절) 동생의 제안에 가타부타 따져보지도, 깊이 생각하지도 않은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곧바로 야곱에게 양도해 버림으로 망령된 사람의 본보기가 되고 말았습니다. 에서의 삶에서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인식하고 묵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사냥할 수 있는 넓은 들판이 더 우선순웠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지 못할 때 우리도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 삶의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가 있나요? 있었다면 나눠보세요.

### 말씀 다지기

신앙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또한 내 상황과 상태와 상관없이 내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가는 것입니다. 리브라처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에서와 같이 망령되지 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말씀으로 기도하기

1.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인정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2. 삶의 우선순위를 지켜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하나님의 자녀

🎵 하나님 찬양하기

-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
- 268장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마음 열기** 한주간의 삶과 Q.T, 감사제목 등을 간단히 나누며 마음 문을 여세요.

**말씀 열기** 본문읽기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12절을 함께 읽습니다.

배경 이해하기

마가복음 3장에서는 종교적 기득권층과 예수님과 충돌이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충돌의 와중에서도 예수님은 당신이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신앙 공동체에 얼마나 특별한 관심을 쏟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마가복음 3장에서 특별히 무엇으로 중요한지에 대해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며,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떠한지 여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심장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규율보다 사람이 더욱 중요하고, 익숙함보다는 친밀감이 더욱 중요하며, 혈육의 가족보다 하나님의 가족이 더욱 중요하다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나누기

**관찰과 묵상**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셔서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막3:1)

**적용과 나눔** 안식일에 예수님을 주시하고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면밀히 살피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소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허물과 결점은 보지 못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하여 자기의 기준을 들이대고 비판하고 흠잡기에 여념이 없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족한 사람을 주목하되 어떻게 하면 도와줄 수 있을지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관찰과 묵상**

1.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시느니를 주시하고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막3:2)
2.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이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의논하였던 이유는 무엇입니까?(막3:6)

**적용과 나눔** 안식일에 치료를 행하신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헤롯당에 의해 미움을 사게 된 것은 안식일을 어겼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중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는 누구나 아는데도 말입니다. 우리는 때로는 인간이 만든 인간의 법과 제도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기를 바랍니다.

말씀 다지기

예수님은 당시의 관습에 따라 본인 스스로 어려움에 처해질 것을 알면서도 안식일에 치료를 베풀었습니다. 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자,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의 시선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멀리하지는 않는지 살펴보고 관습과 제도가 아닌 하나님 사랑과 사람 사랑에 초점을 두는 자들이 됩시다.

**말씀으로 기도하기**

1. 우리가 인간의 잣대로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으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2.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고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평양 대부흥으로 이어진 1903년 원산 대부흥 운동을 일으킨 하디 선교사(4) (Robert A. Hardie)(1865~1949)

(한국 체류 : 1890~1935)(한국이름 하리영 선교사)

### 한국 교회의 자랑, 1907년 평양대부흥

마)15일 저녁 마지막 날 사경회는 통제가 불가능한 회개의 릴레이가 되다.

15일 선교사들은 정오 기도회로 잠시 모였다. 그런데 그 기도회는 무려 2시간이나 길게 이어질 정도로 성령님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다.

15일 저녁 마지막날 사경회에도 성령 하나님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죄를 보도록 하시고 죄를 아파하며 회개하고 고백하게 했다. 길선주 장로의 ‘회개하라’는 말씀의 선포는 강력한 힘으로 역사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죄, 곧 공금 횡령, 도둑질 등을 고백했다. 추악하고 부끄러운 죄의 고백을 듣는 분위기는 죄의 공포로 두렵고 떨려 견딜 수 없는 정도였다. 양심의 갑작스런 찢림으로 마치 심장이 화살에 꿰뚫린 것 같았다. 그날 공개적이든 개인적이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은 없었다. 선교사를 도와 일하던 자가 선교사를 미워한 죄를 고백하고 선교사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죄를 고백했다. 심지어 어떤 여자 성도는 청일전쟁 때 어린아이를 업고 도망하다 무거워 빨리 갈 수 없어 아기를 나무에 부딪쳐 죽이고 혼자서 달아났던 참혹한 일까지 고백했다. 어떤 사람은 과거 강도짓을 하고 다닌 것



평양대부흥의 주역인 길선주 장로, 1907년 6월 20일 조선 예수 교장로회신학교 제1회 졸업생, 1907년 9월 17일 평양 장대현교회에서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됨. 3.1운동 33인 중 한 분, 40년 목회동안 2만여 회에 걸쳐 설교했고, 연 380만여 명에게 복음을 전해 7만여 명의 개종자를 얻었으며, 60여 곳에 교회를 설립하고, 3천여 명에게 세례를 베푼 것으로 추정. 1935년 부흥사경회 인도하다 뇌일혈로 소천, 건국훈장 독립장 추서.

을 회개하고 스스로 경찰에 자수하여 옥에 구속되기도 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만을 바라며 죄를 고백하고 회개한 것은 순전히 말씀과 성령의 일하심의 증거였다.

바)선교사들이 분위기를 진정시켜려고 했으나 소용없었다.

그날 저녁 선교사들은 이처럼 통제가 불가능한 회개의 릴레이가 두려워 강단 앞에서 잠시 모여 회의를 했다. 분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그레이엄 리(이길함) 선교사가 찬송을 부르자 조금 누그러지는 듯했으나 다시 회개가 시작되었고 새벽 2시까지 계속되었다. 날이 밝자 회개한 사람들은 자신의 잘못을 되돌리기 위해 애를 썼다. 도둑맞은 물건이 되돌아오고 빛이 청산되었다. 옛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이다.

사)성령의 역사는 평양 시내 다른 교회로 퍼져나간다.

장대현교회에서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평양 시내 다른 교회로 퍼져나갔다. 여자 고등성경학교, 장대현교회 남자학교, 여자 보통학교, 그리고 선교사들의 기도회에서 부흥의 역사가 반복적으로 일어났다. 성령님의 일하심을 사람이 통제할 수 없었다. 장로교에서 시작된 대부흥의 역사는 감리교회로도 전파되었다. 평양 남산현감리교회에서 2월 22일-3월 22일까지 감리교 선교사와 지도자들이 신학회를 위해 모였는데, 이때 성령님의 강력한 일하심이 있었다고 한다.

### 아)양심전

회개한 교인들은 자기가 지은 죄를 보상 혹은 배상하기 시작했다. 흠뻑거나 횡령했던 돈이나 물건을 되돌려주는 운동이 일어났다. 교인끼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값있다. 평양에서는 교인들이 중국인 상점에 찾아가 수년 전에 훔친 것이라며 상당한 액수를 갚아 중국인을 감동시켰다. 공주에서는 교인들이 훔친 돈과 물건을 돌려주는데, 가까운 곳은 직접 찾아가 용서를 구하며 돌려주었고, 멀리 떨어진 곳은 우체국을 통해 소포로 보냈으며, 주인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예배당 제단에 갖다 바쳤다. 그들은 갚고 나서야 마음의 평화를 얻었다.

윤승근의 ‘양심전’이야기도 이때 생겼다.

경기도 벽제 출신 윤승근은 믿기 전 ‘불량배’ 소리를 듣던 사람이었다. 예수를 믿은 후엔 전혀 새사람이 되어 각지를 다니며 전도하였는데, 교통이 불편한 강원도 선교를 자원하여 지경터에서 가까운 김화 새술막(지금의 학사리)을 거점으로 전도하고 있었다. 그도 1903년 9월 원산에서 열린 사경회에 참석했다가 은혜를 받고, 전에 선교사 몰래 쓴 7달러를 갚으면서 용서를 구했다. 그는 새술막으로 돌아오는 내내 기도하였다.

“하나님이시여, 과거에 지은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사 해를 입힌 자들에게 사죄하게 하소서.”

그리고 집에 도착했을 때, 20년 전에 지은 죄가 떠올랐다. 예수믿기 전에 인천에 있던 주전소(鑄錢所)에 근무할 때 정해진 봉급보다 많은 돈을 받고도 그 돈을 돌려주지 않고 쓴 것이 생각났던 것이다. 윤승근은 그 돈을 갚기로 하고 20원을 마련하여 인천 주전소를 찾았으나 문 닫은 지 이미 오래였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주전소 기능을 관장하고 있던 탁지부(후의 재무부)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돈을 내밀었다. 탁지부 관리는 의아해했다.

“대저 나랏돈이라면 누구나 거저먹으려고 하거늘 예수교인은 어찌된 일인지 20년 전에 정부 잘못으로 나간 돈마저 갚으려 하는가?”

탁지부에서는 윤승근이 가져온 이 돈을 ‘양심전’이라 하였고, 탁지부에서 발행한 ‘양심전’ 영수증은 하디 목사가 기념으로 가져갔다.

\*1907년 평양대부흥의 모습은 다음 호에 계속합니다. (은상철 장로)